

신인 영화감독의 한국영화시장 진출에 대한 거시 분석

Macro Analysi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New-coming Directors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over the Years (1971-2016)

김정호, 김재성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Jung-Ho Kim(kafa1006@khu.ac.kr), Jae Sung Kim(magic@khu.ac.kr)

요약

1971년-1987년까지 20여개의 한국영화제작사에게 한국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고, 이들이 만드는 영화의 편수와에 연계한 외국영화 수입편수 쿼터제를 유지하여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한 결과, 졸속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지고, 한국영화는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다. 신선한 피의 수혈도 폐쇄적인 시장때문에 제한되어 혁신을 통한 한국영화의 성장을 저해하여 왔다. 같은 기간, 한국영화편수 점유율은 66.19%인데, 관객 점유율은 28.76%, 연간 개봉 한국영화편수는 92.24편, 외국영화의 편수는 47.76편에 불과 하고, 연간 데뷔감독 수는 10명, 데뷔작품의 편수비중은 10.62%, 관객비중은 한국영화관객비중의 10.5%에 불과하다. 총 46년간 데뷔한 감독 수 1,416명의 61.72%인 874명이 2004년-2016년까지 13년간 데뷔한 감독 이다. 연간 62.15명이 데뷔한 셈이며 데뷔작품은 그 해 개봉된 한국영화편수의 39.58%, 관객 수의 32.8%를 점유한다. 같은 기간 한국영화는 연간 평균 174.38편, 한국영화편수 점유율은 27.77%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3.03%이다. 한국영화는 외국영화와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지만 관객동원은 이전보다 두 배를 동원하였는데 이는 1988년의 외국영화에 국내시장 완전개방 이후, 1999년의 독립영화제작자유화까 지 이어진 일련의 시장 제한 조치들의 해제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영화계의 자생력 강화, 혁신의 결과로 고품질의 관객에 부응하는 한국영화가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4대 배급사의 독과 점의 부작용의 파생효과가 다양성영화의 증가, VOD용 예로영화의 증가로 나타나고, 미래의 한국영화의 혁신의 잠재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우려가 있다.

■ 중심어 : | 수요 공급 | 영화감독 | 한국영화 | 영화산업 | 데뷔 |

Abstract

Over the years(1971 to 1987), only 20 Korean film production companies had been granted the exclusive rights to make Korean films in Korea and to import foreign films with a quota system. They had been making trashy Korean movies to secure import quotas of foreign films. Newcomer's entry of market had also been limited and the growth of Korean films through innovation had been hampered. In the same period, The annual number of Rookie director is 10, the portion of debut films of all Korean films is 10.62%, and the audience portion of debut is only 10.5% of Korean movie audience. From 2004 to 2016, total number of rookie directors is 874, and 61.72% of 1,416 directors who made his debut over the 46 years from 1971 to 2016. This is far more than the number of directors who debuted for the last 32 years. From 2004 to 2016, the annual number of rookie directors is 62.15 and their debut film occupies 39.58% of the total amount of Korean movies released and 32.8% of the audience number. Since the full opening of the domestic market to foreign films industries in 1988, the liberalization of independent film production in 1999, as a result of innovation of a competitive system, the Korean movies have been loved by audiences.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decline of the screen quota in 2006, the monopoly of the 4 major distributors, increase in indie movies and Semi-adult movies for VOD, could be the potential threat for future innovation in Korean cinema.

■ keyword : | Korean Film Industry | Supply and Demand | Movie Director | Rookie | Korean Movie |

I. 들어가는 말

영화감독만큼 매 순간 냉엄한 평가를 받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시나리오에 투자를 유치하는 평가, 출연하는 배우들의 평가, 그리고 영화를 개봉한 후에 매일매일 이뤄지는 영화홍행의 평가, 비평적 평가 등이 피를 말리는 듯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스트레스를 더하게 하는 것은 영화홍행이 도박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영화감독에 데뷔하는 데에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도 없으며, 특별하게 정해진 공부방법도 없으며, 몇 년을 수련하면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도대체 일 년에 몇 명을 감독으로 뽑는지도 모른다. 운 좋게 감독 데뷔한다고 하더라도, 흥행이라는 냉엄한 평가와 비평적, 영화 제작 능력적 평가에 의해서, 데뷔작이 은퇴작이 될 수도 있다. 사법 시험의 연간 합격자수는 정부가 통제한다. 연간 100명을 뽑던 시기에서 300명으로 정원이 늘었다가 다시 1천 명이 되고 이제는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을 배출한다. 의사와 약사의 정원도 국가가 통제하면서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이득을 일정부분 보장한다.

영화감독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없지만, 영화감독의 데뷔에도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감독이 되려는 감독 지망생 즉 감독인력의 공급은 항상 많아왔다. 그러나 이들 중 한 해에 데뷔하는 감독 수는 결국, 영화산업이 요구하는 신인감독의 수요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신인감독의 수요는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한국영화의 편수, 영화 산업의 규모, 스크린 수, 경제소득 수준과 인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한국영화편수는 영화시장에 자유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정부의 개입이 아직 유아단계였던 한국영화산업을 할리우드 등 어른이 된 영화산업으로부터 보호하여 스스로 걸음마를 걷고 설 수 있을 때까지 보호역할을 하고, 스스로 걷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달릴 수 있을

때 자연히 독립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과보호로 기득권 세력의 수입과 지배력을 보호하여, 신진세력의 진입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썩어버린 고인물이 되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부는 영화를 통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얻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연감이 발행되기 시작한 1971년부터 정부가 전국적인 영화홍행 통계를 제공하는 2004년을 거쳐서 2016년까지 개봉된 한국영화를 모집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의 기본 가설은 한국영화가 많이 만들어 질수록 신인영화감독이 많이 영화산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를 미리 말한다면, 이 가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즉 일반적으로 한국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서 영화제작이 활발하면,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많은 신인감독이 공급된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성장과 경제 성장 등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영화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국의 영화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것인데 그에 따라 외국영화의 공급규모도 커졌다. 그런데 본 연구의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1970년대에 데뷔하는 한국영화감독들 보다, 외국영화의 비중이 상당히,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재에 데뷔하는 신인감독들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에 있어서 높다. 이는 사회 경제 제도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한국영화의 보호장치를 사용하였던 1970년대의 한국영화정책이 기존 영화계종사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작용하여, 신진세력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현재의 영화정책하에서는 경쟁적으로 새로운 피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1970년대의 정책이 100%로 한국영화에 나쁜 역할을 하였는가에는 의문이 있다.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보행기의 역할을 하여, 현재의 한국영화성장을 위한 명맥을 유지하는 역할은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려 하였으나, 영화시장에 영화감독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국내연구 논문을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1. 한국영화산업에서 연간 데뷔하는 감독은 몇 명인가?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가?
2. 연간 데뷔하는 감독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들이 있는가? 데뷔감독의 수와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3.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에서 데뷔감독의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들이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4.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가 동원한 관객의 수에서 데뷔감독의 영화가 동원한 관객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그리고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5. 연간 데뷔감독들은 대체로 나이가 몇 살일 때 데뷔하는가? 그리고 이 데뷔나이는 세월이 감에 따라 변화가 있는가?, 데뷔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6.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의 규모, 즉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어떠한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2004년 이후의 한국영화관객점유율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전국관객을 기준으로 한 통계치를 사용하였으며, 1971년부터 2003년까지의 경우는 영화연감과 영진위의 서울지역 개봉관 기준 관객을 기준으로 한 수치에서 산출하였다. 1971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는 확정적이지만, 2016년의 경우,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형이라서 부정확하다. 논문의 마무리 시점인 2017년 2월까지 2016년 영화산업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데뷔작품만 반영되었다.

단순한 생각에서 많은 한국영화가 만들어지고(한국영화개봉편수 점유율 높음), 그런 한국영화에 많은 관객들이 모여든다면(한국영화 관객점유율 높음), 또한 많은 신인감독들이 데뷔할 것(데뷔감독비율 증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등을 통한 인위적인 한국영화편수와 외국영화편수의 통제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의 가정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초 데이터 즉 정량적 지표를 통하여, 시기를 구분하고, 그러한 지표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국영화산업 정책과 제도를 다룰 것이다.

II. 한국영화 신인 감독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1. 연구대상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통계DB[1]를 기초로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2]와 다음, 네이버의 영화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식통계 집계를 시작한 년도는 1971년이며, 전국단위로 전산화된 통계를 집계한 해는 2003년이다.

우리나라에서 1971년1월9일부터 2016년10월27일까지 극장에 개봉된 한국 영화의 편수는 4677편이다(2016년 말까지를 포함하면 5,064편) 이들 중 공영물은 15편이며, 다큐멘터리는 215편, 애니메이션은 141편이고 극영화는 4,296편이다. 공동연출작품은 212편인데, 여기에서 2명 이상의 감독이 연출한 유니버스 형식의 영화는 50편이다. 감독 1인이 단독으로 만든 유니버스 영화는 4편이다. 다양성영화는 805편이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영화는 700편이고 이들 중 성인VOD용 영화는 291편이다. 성인 VOD용 영화는 2007년부터 7편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2008년 1편, 2012년 20편, 2013년 22편, 2014년 39편, 2015년 90편[3], 2016년 10월 27일 개봉한 영화까지 119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총 291편이 나왔다. 무삭제판이나 감독판 등으로 동일영화 버전이 다른 경우는 총 53편인데 이들 중 성인VOD영화의 무삭제판은 44편으로 나머지 9편 정도가 본격산업영화의 확장판, 감독판 등 버전이 다른 영화이다.

1971년부터 2016년 10월27일까지 개봉된 영화를 만든 감독의 수는 1560명이다. 감독1인당 2.99편의 영화를 만든 격이다. 이들 중 여자감독은 106명이다.

본 분석에서는 홍콩, 일본, 중국 등 외국출신의 감독 37명이 만든 49편의 영화와 공영물15편, 감독 2인 이상이 연출한 유니버스 영화 50편, 동일영화이지만 버전이

다른 영화 53편을 제외한 4510편을 대상으로 하고, 감독은 1509명을 대상으로 한다. 여자감독은 103명이고, 출생년도를 확보한 감독 수는 1028명이다. 전문대학이상에서 영화를 전공한 감독 수는 377명이다.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의 편수는 연간 110.76편, 상업영화로는 88.80편이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는 연간 93.36편이 개봉되고, 최저는 1978년 69편, 최대는 1971년 139편, 그다음은 1974년 134편이다. 1975년에는 93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되었으며, 1981년에는 95편, 1972년에는 92편이 개봉되었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는 연간 94.9편이 개봉되었고, 최저는 1984년 74편이고 최대는 1991년으로 127편이다. 영화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8년과 89년에는 한국영화는 각각 84편이 개봉되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간 66편이 개봉되었고, 최저는 1999년 45편, 다음으로는 98년 46편으로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IMF 시기이다. 이 두해의 신인 감독 수는 각각 17명, 21명씩이다. 최대 작품 수는 2002년으로 102편인데 신인감독도 44명이 데뷔하여 최대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177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되고, 최저 2004년 78편이고 최대 2016년 368편이다.

2. 한국영화산업에서 감독 수요의 변화

영화산업이 활성화되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영화를 만들려면 많은 감독과 스태프를 필요로 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감독들의 데뷔년도를 통해서, 영화산업의 경기변동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년에 걸쳐서 데뷔한 감독 수는 1,416명이다. 연간 30.78명이 데뷔한 것이다.

이들 중 상업영화만을 추려서 보면, 994명으로 평균 22명이 한 해에 데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1년 22명, 1974년 10명을 제외하고, 1971년부터 1981년까지는 연간 데뷔감독수가 한 자리 숫자이다. 연간 7.90명이 데뷔한 셈이며, 1975년이 4명으로 가장 작은 수가 데뷔하고, 1978년도 4명이다. 1982년부터는 연간 두 자리 수의 감독을 배출하는데, 예외는 1984년으로 6명이 데뷔한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는 한해 평균 18.55명이 데뷔하는데, 가장 많은 해는 1991년 33명

이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간 22.82명이 데뷔한 셈이며, 1993년이 최저로 12명, 2002년이 41명으로 최대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연간 67.23명이 데뷔한 셈이며, 최저는 2005년 33명이고, 다음은 2004년 39명이다. 최대는 2014년 99명이고 그다음은 2016년으로 94명이다. 같은 기간, 상업영화로 데뷔한 감독 수는 평균 36명이고, 최저는 2011년 22명이고 최대는 2016년 55명이고 그 다음은 2006년 51명이다. VOD용 성인영화의 등장인 한국영화 작품수와 감독수를 늘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의 51명 데뷔감독 수는 주목을 받을 만하다. 연간 데뷔감독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연간한국영화편수(0.84) 스크린 수(0.94), 한국영화점유율(0.70), 최대나이(0.59), 데뷔평균나이(0.36)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영화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간 요구되는 신인감독의 수도 증가하고, 한국영화점유율에서 오는 자신감이 신인감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고, 신인감독이 한국영화흥행에 도움을 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년 데뷔감독 1,416명중의 61.72%인 874명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데뷔한 감독들이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간 데뷔한 감독은 542명이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는 87명, 1982년부터 1992년까지 205명, 1993-2003년까지는 251명이 데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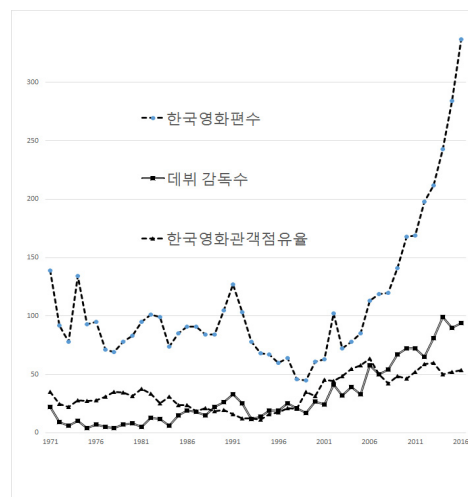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영화관객점유율, 편수 점유율, 데뷔 감독수의 변화

3. 연간 개봉 한국영화에서 차지하는 데뷔 감독의 영화 비율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한국영화산업의 규모가 다르므로, 감독 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에서 신인감독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야, 영화산업의 규모를 고려한 분석이 되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에 적절하다

한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에서 신인감독이 만든 영화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영화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피가 공급되어, 새로운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은 26.40%이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데뷔작 비율의 평균은 8.1%이고, 최저는 75년의 4.3%, 최대는 1971년의 15.83%이다. 1975년에는 93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되는데 이중 데뷔 감독은 4명이다. 1982년부터 1992년 사이의 데뷔작 비율의 평균은 19.13%로 이전의 두 배이다. 최저는 1984년의 8.11%이고 최대는 1989년의 26.19%이다. 1984년에 개봉된 한국영화는 74편이나 데뷔한 신인감독은 6명이다. 1989년의 경우는 84편의 개봉작 중에서 신인감독은 22명이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뷔작 비율의 평균은 35.04%로 최저는 1993년의 15.38%이고, 최대는 1998년의 45.65%이다. 1998년에는 46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되는데, 이들 중 신인감독은 21명이고, 1993년에 개봉된 78편의 한국영화 중에 12편이 신인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0.7%이고, 최저는 2015년 31.69%로 같은 해 개봉된 한국영화 284편중에 90명이 신인감독이다. 최대는 113편의 영화 중에서 58편의 감독이 신인감독이어서 51.33%이었던 2006년이다.

데뷔작비율과 양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상업 데뷔감독 수(0.75), 스크린 수(0.66), 다양성영화데뷔비율(0.56), 한국영화점유율(0.53), 최대나이(0.47), 한국영화편수 (0.19)이고, 음의 상관관계는 한국영화편수 점유율(-0.77), 상업데뷔감독비율(-0.56)이다. 이는 최근의 다양성영화강세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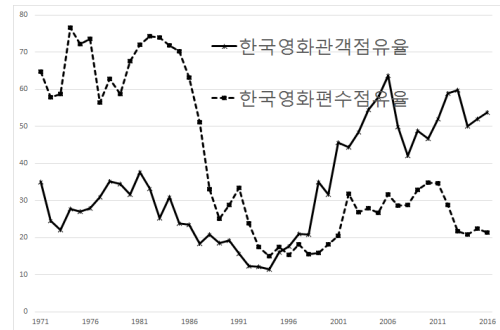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영화편수 점유율, 관객점유율의 변화

4. 연간 개봉 한국영화에서 차지하는 데뷔 감독의 영화가 동원한 관객 비율

데뷔작품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성격의 작품과 감독이 영화산업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이 데뷔작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는 지는 이들의 영화들이 동원한 관객의 수로 파악가능하다. 데뷔작품들이 동원하는 관객이 미미하다면, 새로운 감독을 데뷔시키는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존의 감독들에게 연출기회를 더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영화가 동원한 전체 관객의 수에서 데뷔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데뷔작들의 흥행실적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데뷔감독의 영향력과 이후의 데뷔감독을 채용하는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기존감독의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판단의 근거로도 작용할 것이다.

한 해 동안 개봉된 한국영화가 동원한 관객 수에서 데뷔하는 감독의 작품이 동원한 관객 수의 비중이 최고인 해는 2004년으로 데뷔작품관객비율이 81.58%를 차지한다. 이 해에는 78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데뷔작품이 39편으로 데뷔작품 비율은 50%이다. 가장 작은 해는 1993년으로 2.93%이다. 1993년에는 78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12편이 데뷔작이어서 데뷔작품 비율도 15.38%에 불과하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비율은 23.59%이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평균은 9.46%이고 최대는 1974년의 24.50%, 최저는 1975년의 4.81%이다. 1974년의 한국영화 134편중 데뷔작품은 10편으로 7.46%의 데뷔작품비율을 가진다. 1975년은 93편중 4편이

신인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데뷔작품비율은 4.3%이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의 평균은 15.63%이다. 최대는 1992년으로 47.47%로 103편중 25편이 데뷔작으로 24.27%의 데뷔작품비율을 가진다. 최저는 1991년으로 6.19%로 127편중 33편이 데뷔작으로 데뷔작품비율은 25.98%이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경우는 38.78%의 평균 데뷔작품관객비율을 가진다. 최대는 1998년의 68.39%이고 최저는 1993년의 2.93%이다. 1998년의 경우, 46편의 한국영화 중에 45.65%인 21편이 데뷔작이다. 1993년은 78편의 15.38%인 12편이 데뷔작이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29.43%의 데뷔작품관객비율을 보인다. 최대는 2004년의 81.58%이고 최저는 2016년의 11.15%이다. 2004년은 78편의 50%인 39편이 데뷔작이고 2016년의 경우는 368편의 25.54%인 94편이 데뷔작이다. 데뷔작이 차지하는 관객의 비중은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2011년부터 10%내외의 하락세이다. 2015년의 경우 데뷔감독 90명중에 상업데뷔감독은 50명, 다양성데뷔감독은 40명이다. 여기에 더해, VOD용 예로영화화를 통한 데뷔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데뷔감독의 흥행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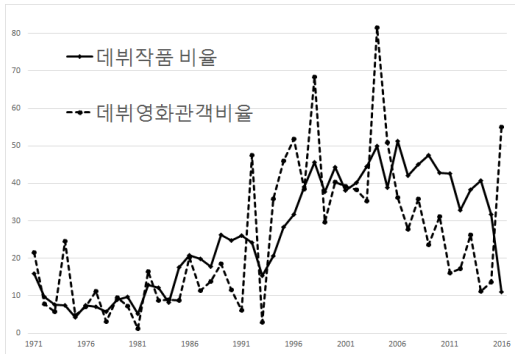


그림 3. 데뷔작품, 데뷔관객점유율의 추세

5. 데뷔 감독에서 상업영화 감독의 비중

1998년 이전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영화들은 모두 상업영화이었다. 다양성영화를 제외하여, 2016년까지 상업영화로 데뷔한 감독의 수를 비교하여야, 과거와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1998년까지, 데뷔한 감독 중에서 상업영화 감독의 비

율은 100%이다. 1999년부터 다양성영화로 데뷔하는 감독들이 생김으로써 데뷔 감독 중에서 상업영화 감독의 비중도 작아지기 시작한다. 가장 최저비율의 시기는 31%의 비율을 보인 2011년으로 이 해에는 72명의 감독이 데뷔했는데, 이중 상업영화 감독은 22명이다. 가장 최고의 비율을 보인 해는 2000년으로 데뷔감독 27명중 26명이 상업영화 감독으로 96%의 비율을 보인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데뷔 감독 중 상업영화 감독 비율의 평균은 66%이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 동안 1015명의 감독이 데뷔하여, 연간 평균 56.39명의 감독이 데뷔하였는데, 이중 상업영화 감독은 58.42%인 593명으로 연간 33명이 데뷔한 셈이며, 다양성 영화감독은 41.58%인 422명으로 연간 23.44명이 데뷔한 셈이다. 연간 평균으로 보면 데뷔 감독 중 33.66%가 다양성 영화감독인 셈이다. 상업영화 데뷔 감독수의 절대적 숫자로 보면, 많은 상업영화 감독을 배출하는 셈이지만, 상대적 숫자로 본다면, 상업영화 감독으로의 데뷔 기회는 더욱 험난하다고 볼 수도 있다.

6. 데뷔 감독에서 다양성영화 감독의 비중

연간 개봉하는 한국영화에서 다양성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35%에서 2011년 55.03%로 정점을 찍고 2015년 40.85%를 차지한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된 한국영화의 평균 30.33%가 다양성영화이며, 2009년부터는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4]. 점차 한국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서 연도별 감독 수에서 다양성 영화로 데뷔하는 감독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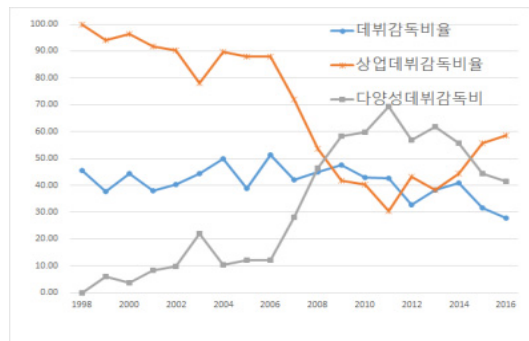


그림 4. 1998년 이후, 데뷔감독, 상업, 다양성, 비율의 변화

중도 커지고 있다. 같은 시기 다양성 영화로 데뷔하는 감독 수는 평균 연간 23명으로 연간 데뷔하는 감독수의 33.66%가 다양성 영화감독이다. 1999년 1명을 시작으로 2014년 55명으로 최대이며, 이 해 데뷔한 감독 99명중 55.56%가 다양성영화로 데뷔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7. 데뷔 감독의 연령변화

연간 데뷔하는 감독들이 몇 살 정도에 데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데뷔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관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20대의 감성과 취향과의 격차가 작아서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다루는 소재상의 세대교체도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대제도상, 남자라면 최소한 20대에 2년여 정도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함으로, 그 기간만큼 데뷔하는 기간이 늦어질 것이며, 연출부, 조연출, 등 산업에 진입 후에 감독까지 가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1971년부터 2016년 10월27일까지 개봉된 영화를 만든 감독의 수는 1560명인데, 감독1인당 2.99편의 영화를 만든 격이다. 여자감독은 103명이고, 출생년도를 확보한 감독 수는 1,028명이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 데뷔한 감독 1,028명의 데뷔나이 평균은 36.48세이다. 최빈값, 즉 많이 데뷔하는 나이는 34세이고, 중앙값은 36세이다. 연간데뷔나이 평균이 가장 낮은 해는 그해 데뷔한 감독 나이 평균이 31.83세인 1976년이며, 가장 높은 해는 1987년으로 40.86세이다. 2016년의 잠정치도 41세로 가장 높다. 1976년에 데뷔한 감독 중 최고연령은 34세, 최저 연령은 27세이며 최빈값은 34세로 2명이다. 1987년의 최고연령은 55세이고 최저연령은 29세, 최빈값은 40세로 3명이다. 특정연도에 데뷔한 감독 중 최고령자의 나이는 65세로 2004년과 2015년에 나타난다. 이때의 연간 데뷔나이 평균은 각각 36.68세, 39.20세이고 최빈값은 각각 34세, 32세이다. 연도별 최저 연령으로 데뷔한 해는 1997년으로 19세이고, 그 다음은 21세인 1980년이다. 이때의 연간 데뷔나이 평균은 각각 35.18세, 35.19세이고 최빈값은 각각 31세, 30세이다. 연도별

최고연령의 평균은 48.19이고 최저연령의 평균은 28.21세이고 최빈값의 평균은 35.74세이다. 연도별 데뷔나이 평균과 최고연령, 최저연령간의 간극이 적은 해는 1981년으로 이 연도에는 데뷔나이 평균이 40세, 최고연령 41세, 최저연령 39세로 그 차이가 가장 적다.

연도별 데뷔나이 중 최고령의 경우는 대부분, 다른 분야나 영화분야에서 시나리오, 촬영, 기획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가 늦게 감독으로 데뷔하는 경우들이다. 이들의 나이가 연도별 데뷔감독 연령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균 연령과 함께 그해에 데뷔하는 감독 중에서 비슷한 연배가 몇 명이나 데뷔하는지를 보여주는 최빈값을 고려해야 한다. 영화현장에 들어와서 연출부를 통해서 바로 감독으로 데뷔하는 경우는 연도별 최저 나이 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인생이나, 영화의 다른 영역이 아닌 오로지 연출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경우의 데뷔나이는 연도별 최저 연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71년-1981년 구간의 평균 나이는 35.78, 최대나이 평균은 41.63, 최소나이 평균은 31.1, 최빈값 평균은 35.2세이다. 1982년-1992년 구간은 각각 36.85, 48, 28.1, 37.6이다. 1993년-2003년 구간은 35.94, 47.72, 26.55, 34.4이다. 2004년-2016년 구간은 37.74, 54.31, 27.31, 35.54이다.

1981년 이후로 감독데뷔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의 간극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81년 이후로 영화제작의 기회는 많아지고 데뷔의 기회도 넓어지고 여성감독의 비중도 늘어났으나, 이전의 1970년대와는 달리, 영화감독을 지망하는 인력들이 대학 졸업자들로 학력이 높아지면서, 대학 4년, 군대 2년, 연출부 등 5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데뷔하게 됨으로써 데뷔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데뷔나이 평균은 떨어지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된다. 2001년 이후 전문대 이상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데뷔한 감독들이 연간 평균 20명이 나오고 있으며 2003년 데뷔감독 32명의 46.88%인 15명이 영화전공 대졸자이며, 2006년의 경우 영화전공 데뷔 감독이 27명으로 전체 데뷔감독 58명의 46.55%를 차지한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데뷔감독 중 영화전공 대졸자 비율은 평균 21.01%, 연간 5명이다.

여자감독도 2001년부터 매년 평균 5.875명이 데뷔하여, 데뷔감독의 11.72%를 차지하며, 2009년의 경우 여자감독이 10명이 데뷔하여, 전체 데뷔감독의 14.93%를 점유한다.

1971년-216년까지의 데뷔 감독 중 상업영화데뷔감독만을 놓고 보았을 때, 데뷔나이 평균은 36.65세로 다양성영화 데뷔감독을 포함하였을 때의 36.54세보다 0.21세가 높아지고, 최고연령의 평균은 47.46세, 최저연령 평균은 29.26세로 다양성을 포함했을 때보다 그 폭이 작아진다. 1999년부터의 다양성감독 데뷔를 제외한, 상업영화평균데뷔나이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데뷔감독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 소비계층인 20대의 정서에 부합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어필하여 결과적으로 흥행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 확신하기 어렵다. 해당연도의 한국영화가 동원한 관객 중에서 데뷔작들이 동원한 관객들의 비율, 즉 데뷔작품 관객동원 비율은 최대나이와는 0.24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데뷔나이 평균과는 -0.24, 최소나이와는 -0.43, 최빈 나이와는 -0.29의 상관을 보인다. 신인감독의 신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설뿐 영화 만들기에 의해서는 흥행 성적을 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영화 만들기에 숙련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나이는 데뷔 감독수(0.59), 데뷔작품비율(0.47), 예로영화편수(0.44)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그런데 최대 나이는 상영데뷔감독비율(-0.50)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나이 많은 감독들이 다양성영화편수(0.51), 예로영화편수(0.44)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나이 많은 데뷔감독이 이들 상업영화편수(0.22)보다는 다양성영화와 예로영화로 많이 데뷔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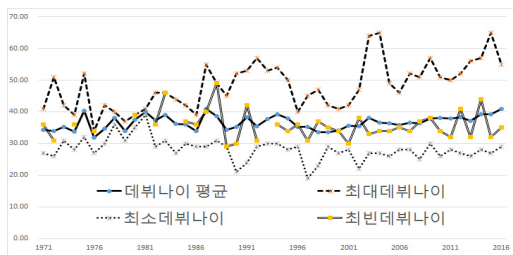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데뷔 나이의 변화

III. 감독수요를 결정하는 한국영화공급의 규모 변화

1. 감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71년부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상관 계수 0.93), 인구, 등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편수도 상승세이며 그에 따라서 연간 데뷔하는 감독수도 상승세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와 연도별 데뷔 감독 수는 양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편수, 연간 스크린 수(극장 수), 한국영화개봉편수 점유율,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의 변수를 연간 데뷔 감독 수, 상업 데뷔 감독 수, 다양성 데뷔 감독수와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간 데뷔 감독 수에 양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스크린 수(0.94), 연간 개봉되는 외국영화편수(0.83),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편수(0.83), 한국영화관객점유율(0.70) 순이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전체 개봉된 영화 중에서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한국영화개봉편수 점유율(-0.51)이다. 한국영화개봉편수 점유율과 데뷔 감독 수는 0.51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한 해 동안 개봉된 영화 중에서 한국영화의 비중이 높을수록, 데뷔 감독 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의 해석에도 주의를 요하는데, 전반적으로 외화수입을 통제하던 상황에서 1988년을 시작으로 외화수입이 자유화 되어 2015년에는 980편, 2016년 현재에는 1,222편이 수입되었다. 그 결과 한국영화개봉편수 점유율이 한국영화 134편, 외국영화 41편이 개봉되어, 76.57%로 최고를 보였던 1974년 이후, 그 점유율은 하락세로 돌아서서, 1994년에 한국영화 68편, 외국영화 387편이 개봉하여, 14.9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5년에는 한국영화 284편, 외국영화 980편이 개봉되어 22.47%를 기록하였다. 소수의 영화사가 한국영화제작을 독점하고, 한국영화제작편수에 맞춰서 수입영화 쿼터를 주던 방식이 결국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영화개봉편수점유율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전체 데뷔감독에서 상업영화로 데뷔하는 감독수를 보는 상업영화데뷔감독비율로 0.395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이

점은 1998년까지 데뷔한 모든 감독이 상업영화감독이어서 그 비율이 1998년까지는 100%이고, 그 뒤에 다양성감독의 비중이 상승하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신인감독들도 많이 데뷔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 편수와 데뷔 감독수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0.83으로 높게 나온다. 개봉되는 한국영화가 많을수록 데뷔하는 감독도 늘어나서, 감독데뷔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1984년부터 기록된 연간 한국영화 관객점유율과 데뷔감독수도 0.70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해석을 요하는데, 데뷔감독들이 보다 관객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관객들을 많이 끌어들였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여 한국영화점유율이 높아져, 보다 모험적으로 신인감독들을 등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또 그런 신인감독들의 흥행성공이 다음해의 신인감독 데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영화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데뷔감독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므로, 한국영화시장에서 외국영화보다 한국영화가 많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해에 개봉되는 한국영화가 그해에 개봉되는 전체영화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개봉 한국영화편수점유율과 데뷔 감독 수(상관계수 - 0.51)를 비교해 보면, 개봉되는 외국영화보다 한국영화의 수가 많았던 1970년대와 1986년까지는 연간 데뷔하는 감독수가 그 이후보다 작았다. 86년까지의 연간 개봉한국영화편수점유율의 평균은 67.13%인데, 평균 데뷔 감독 수는 9.5명인 반면에, 87년부터의 연간 개봉한국영화편수점유율은 25.66%인데, 평균 데뷔 감독 수는 42.13명이다. 한국영화 제작사를 20여개로 제한하고, 연간 수입되는 외국영화편수를 제한하던 시기에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새로운 피의 수혈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에, 외국영화 수입자유화가 이뤄지는 1987년부터는 일시적으로 한국영화가 약화되었지만, 외국영화와 본격 경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의 일환으로 신인감독의 데뷔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해 동안 개봉된 한국영화 중에서 신인감독이 만든

영화의 비율을 보는 데뷔작품비율은 스크린 수(0.66), 한국영화관객점유율(0.53), 한 해 동안 개봉되는 외국영화편수(0.44)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한 해 동안 개봉된 한국영화의 편수(0.17)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영화편수점유율과는 -0.76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데뷔작품의 동원관객비율은 데뷔작품비율(0.69), 한국영화편수점유율(-0.58)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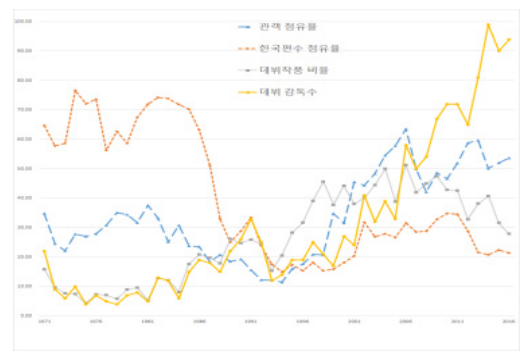


그림 6. 편수, 관객, 데뷔작품점유율과 데뷔 감독 수 추세

표 1. 연구대상 시대 구분별 한국영화 지표

항목/구간	1971-1981	1982-1992	1993-2003	2004-2016	전체
개봉 한국영화 편수	1027	1044	726	2267	5064
데뷔 감독수	87	204	251	874	1416
평균개봉한국영화편수	142.18	234.72	349.63	681.77	366.41
평균개봉한국영화편수점유율	93.36	94.9	66	177	110.76
평균한국영화관객점유율	30.36	21.96	27.61	53.03	34.10
평균 스크린 수	569.46	635.63	693.27	1991.75	995.18
평균 연간 데뷔 감독수	7.9	18.55	22.82	67.23	30.78
데뷔작품비율	8.1	19.13	35.04	40.7	26.4
데뷔작품 관객비율	9.46	15.63	38.78	29.43	23.59
평균데뷔연령	35.78	36.85	35.94	37.74	36.63
데뷔감독수와 관객점유율상관지수	0.16	-0.8	0.76	-0.11	0.7
데뷔감독수와 편수점유율상관지수	0.02	-0.76	0.89	-0.47	-0.51
데뷔작품비율과 관객점유율상관지수	0.12	-0.85	0.68	-0.08	0.53
데뷔작품비율과 편수점유율상관지수	-0.27	-0.84	0.37	0.59	-0.77

2. 60년대 영화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정과 변화

연간 데뷔하는 감독들의 숫자의 규모 즉 감독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는 점은 감독 지망생 즉 공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수요 즉 한 해 동안 만들어져서 개봉되는 한국영화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한국영화의 공급은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통제되어 왔다.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제작사 숫자 통제, 제작사에 할당되는 연간 제작편수, 연간 제작편수와 연계된 외국영화 수입 쿼터제, 프린트 별수 제한, 스크린 쿼터 등이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스크린 쿼터만이 유지되고 있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급을 통제하는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앞에서 이뤄진 실증적 분석이 통제에서 경쟁체제 도입의 결과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1년 5.16 이후, 9월 30일에 기존의 한국영화 제작사 72개소를 16개사로 통합하였다. 국산영화 연간 15편 이상을 제작하는 경우를 제작자로 인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제작업자들은 통합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5].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영화법은 영화 제작, 수입, 수출업을 등록제로 하고, 영화제작을 사전신고제, 영화 상영 허가제를 시행한다. 1963년 3월에 이뤄진 영화법 1차 개정에서는 제작업의 기준을 연간 15편 이상의 제작과 더불어서, 35mm 이상 촬영기 등 장비, 건평 200평 이상의 스튜디오, 녹음시설, 전속 영화감독, 배우 및 기술자를 갖추도록 강화하여 영화의 대량생산과 기업화를 지향하였다. 또한 외국영화수입 쿼터제는 국산영화제작업과 외국영화 수입업을 일원화하여, 국산영화제작편수와 비용, 국산영화 해외수출 편수, 국제영화제 출품편수와 수상실적, 우수 국산영화상 수상편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추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산영화 보호와 육성을 꾀했다[6]. 1966년 8월에 이뤄진 2차 영화법 개정에서는 영화사 등록 요건 중에서 녹음기와 전속제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제작편수를 15편에서 2편으로 대폭 완화, 타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제작하는 대명제작의 금지, 외국영화수입 추천기준에서 국산 극영화 제작편수와 비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등록제작업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와 외국의 법인

과 단체는 등록을 금지하여 외국인의 영화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1986년 6차 영화법 개정에서 영화시장 개방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한다. 또한 스크린 쿼터제를 신설하여 연간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 연도의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서 국산영화를 상영하게 하였다. 사전 제작신고와 대본 심의, 상영 전 검열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제작쿼터제를 도입하였는데, 1965년 189편의 한국영화가 제작되어, 국산 영화 수급조절 상 적정편수인 150편을 넘어서서, 연간제작편수 상한선을 150편으로 하고 국산 영화 제작권 배정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정제는 60년대 후반 제작편수가 200편을 넘어서면서 실패하였다. 1967년에는 제작사를 25개사에서 12개사로 다시 강제 통합하였다. 영화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면,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제작사의 연간 제작편수가 1-3편에 불과하였으나, 1차 영화법 개정 이후, 1964년에는 14.7편으로 급증한다. 그러나 의무제작편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들의 경우는 등록된 제작사 이외에 제작을 의뢰하는 대명제작을 하게 된다[7]. 외국영화 수입편수를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수입쿼터제는 수입쿼터를 사고파는 암거래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수입쿼터제로 1960년대 연간 수입영화 편수는 50-60편대를 유지한 반면에, 한국영화제작편수는 100편-200편대까지 증가한다. 그 결과 외국영화 상영편수는 항상 수입편수보다 50여 편 더 상영되고, 한국영화는 제작편수에 비해 상영편수가 50여 편이 적었다. 편당관객수의 경우, 외국영화가 평균 84,693명이라면, 국산영화는 평균 54,030명으로 외국영화가 두 배에 가깝고, 평균 상영일수도 외국영화 21.23일이라면 국산영화는 13.12일로 외국영화가 2배가 가깝다. 외국영화의 수익성이 국산영화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수입쿼터를 얻기 위해서 제작편수를 1966년 136편에서 1969년 229편으로 늘리거나, 수출실적도 1963년 15편에서 1969년 138편으로 늘어났고, 60년대 후반 문예영화제작 붐을 가져왔다[8].

3. 70년대 영화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

70년대 한국영화산업은 산업화와 도시화, TV와 라디오 보급의 증가로 한국영화 관람객수와 극장수가 6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고 제작편수가 크게 줄어드는 불황을 겪는다. 1971년 7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로 들어서고, 1974년에는 9개의 긴급조치가 발동된다. 1973년 3월30일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같은 해 7월11일부터 전국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걷기 시작했다. 1970년에 이뤄진 3차 영화법 개정은 기존의 수입 쿼터 부여기준을 없애고, 영화제작업과 외화수입업을 분리하고, 등록 전 1년 내에 국산영화 6편 이상을 수출하고 달러화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획득 실적이 있어야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연간 4편 이상의 국산영화 수출실적이 있고,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외화획득 실적이 있어야 수입영화추천을 받게 했다. 그 결과 국산영화 수출편수는 1970년 242편, 1971년 210편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은 영화진흥조합의 설립을 통해서 영화산업에 대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전의 대명제작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작사가 3명 정도의 영화제작 담당자를 전속으로 둘 수 있는 프로듀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독립 프로듀서가 기존 영화제작사의 영화제작을 대명제작을 통해서 배워주던 것을 보완하였으나, 전속 프로듀서를 3명만 두게 하는 조항은 규제조항으로 작용하여, 이 시기에도 대명 제작이 전체 제작의 80%를 넘어서고 있었다[9]. 1973년 2월에 공포된 4차 개정 영화법은 1973년 4월 3일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하여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 출범까지 한국영화를 총괄하게 만든다. 제작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었으나 시설기준을 유지하고 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3차 개정에서 완화되었던 기업화정책이 강화되어 독립영화 제작자의 제작이 불가능해지고 1984년 제5차 영화법 개정까지 14-20개사의 소수 제작사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들 제작사에게 제작업과 수입업을 다시 일원화하여 제작자에게 수입쿼터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4차 개정 영화법은 매년 연초에 문화공보부 장관이 영화 수급계획을 비롯한 영화시책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영화진흥공사는 1975년까지 6편의 국책영화를 직접 제작하다가 1976년 민간에 이양하였다. 매

년 발표되는 영화시책에 외국영화 수입쿼터 배정기준이 발표되는데, 영화제 수상작과 우수영화에 대해 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에, 1976년부터는 국책영화제작 보상을 실시하여 연간 10여 편을 국책영화로 선정하여 외화쿼터를 주었다. 한국영화를 3편 제작, 개봉할 경우, 외화수입쿼터 1편을 준다는 쿼터보상제도는 1975년까지 시행되었는데, 줄속으로 저질영화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1974년 오일쇼크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1975년 7월 수입쿼터를 41편에서 26편으로 줄이고, 외국영화 수입에 사용하도록 배당되는 달러화 외환배정을 1975년 150만 달러, 76년 160만 달러로 감소시켰다가, 1979년 4백만 달러대로 통제하였다. 그 결과 외화수입편수는 한국영화제작편수의 3분의 1정도인 1979년 26편까지로 떨어지지만, 외국영화의 점유율은 상승한다. 서울 개봉관 기준으로 19060년대 한국영화 관람객수가 평균 7백만 명선, 외국영화가 8백만 명 선이었다면, 1970년대는 한국영화 평균 3백만 명선, 외국영화 7백만 명 선이고, 편당으로 하면 한국영화 31,562명, 외국영화 102,730명으로 외국영화가 3배 수준이다. 편당평균상영일수도 한국영화가 14.77일, 외국영화가 34.72일로 3배이다. 그리고 매년 제작된 한국영화 중 14편 이상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지 못했고, 1977년부터는 미상영 편수가 30편을 넘어선다. 영화제작과 수입의 독과점구조가 신규진입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그들만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영화의 수익으로 한국영화의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를 유지한 결과이다[10].

표 2. 1970년대 한국영화시장 지표
(김동호, 한국영화정책사 pp.240-251, 발췌정리)

연도	영화사수	한국영화개봉편수	수입편수		편당 평균관람객수		평균 상영일수	
			수입추천	검열기준	한국영화	외국영화	한국	외국
70	23	179	54	53	31,296	66,192	13.7	26.4
71	23	139	70	79	28,629	65,039	13	25
72	20	92	57	59	19,639	71,866	12.6	25.2
73	12	78	47	51	17,915	84,134	10	29
74	14	134	40	37	18,494	76,668	10.4	26.6
75	15	93	32	31	18,813	89,390	12	31
76	16	95	36	36	20,131	85,410	14	31
77	14	71	40	38	44,672	154,686	17	44
78	20	69	32	30	74,905	200,689	23	41
79	20	78	21	26	59,019	133,226	22	68

4. 80년대 이후 영화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

1980년 12월부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고, 1982년 1월 5일부터 통금이 해제되고, 3월27일부터는 심야극장이 매주 토요일 밤 12시에 오픈하고, 같은 날 우리나라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었다. 1984년에 VTR 보급대수가 40만대를 넘어서는 등, 영화극장외의 여가활동이 더욱 증가하면서 영화산업의 불황은 유지되었다.

1981년 영화시책에서 외국영화수입은 20에서 25편 이내, 한국영화제작편수는 100편 내외로 70년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스크린 쿼터제에 변화를 주었다. 연간 상영일수의 200일을 초과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하여 스크린 쿼터 일수가 165일로 기존보다 43일이 늘어나는 강화책을 1984년까지 유지한다. 1973년 영화법에서 외국영화 다음에는 반드시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하는 교호상영제도 유지되었고, 인구50만 이상의 도시 개봉극장에서 동일 제명의 국산영화를 5일 이상 상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연법 완화를 통해서 1983년부터는 소극장의 수가 증가하였고, 개봉관, 재개봉관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1984년 12월 개정되고 1985년 7월에 시행된 5차 개정 영화법은 영화제작업과 수입업을 분리하고, 영화업 허가제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1억5천만 원 규모의 예탁금의 기준으로 등록제로 바꾸게 된다. 예탁금 규정은 1986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감소한다. 등록된 영화제작사는 연간 1편 이상의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제작편수제도는 1906년대부터 존재하여 왔고, 1995년 영화진흥법 제정 시 2년에 1편으로 완화되었다가 1999년 2차 영화진흥법 개정 시 영화사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사라졌다. 1985년과 86년의 한국영화제작편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기존 외화수입쿼터를 위해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예탁금 규모가 높아서 신규제작사의 제작이 활발하지 않고 1985년 상반기 한국영화 흥행실패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국영화수입업의 예탁금은 7억 원이었으나, 1986년 5월 제작업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인하되었다.

5차 개정영화법은 영화제작업자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독립영화 제작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연간 1편에 한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

작신고를 하고, 영화제작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제작을 하고, 단계별로 예치금을 환급받는 구조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수형이 충무로에 이뤄진다.

1985년의 영화시책에서는 한국영화의 복사편수를 20편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외국영화 프린트 수입량을 편당 10벌로 제한한다. 외국영화 프린트 벌수 제한은 1989년 12벌로 완화되고, 1993년까지 매년 1편씩 추가로 늘려가다가 1994년에 완전히 폐지하여, 광역개봉이 가능하게 된다. 1987년의 영화시책 중, 스크린 쿼터는 연간 146일,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교호상영제 철저시행, 한국영화 기본 상영기간 인구 50만 도시 개봉관 7일 준수 등의 시책은 이후 미국의 영화시장 개방 압력을 받아서 변화를 맞는다. 미국과의 협상을 반영한 6차 영화법 개정은 1986년 22월31일 개정이 이뤄지고, 시행은 1987년 7월1일에 행하여진다. 6차 개정을 통해서 외국국적의 국내 지사 설립이 가능하여, 1988년 <위험한 정사>를 직배하기 시작하였고, 등록자본금 5천만 원 규정을 외국수입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수입가격 상한선을 폐지하고, 연간 1회사 1편 수입제한 규정은 폐지된다. 2차 한미영화협상을 통해서 1989년 1월1일부터 스크린쿼터와 프린트벌수 제한을 제외한 한국영화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 프린트 벌수 제한은 1994년에 폐지되어 이때를 완전 개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호상영제는 1996년 7월 영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스크린 쿼터제는 96년 7월 이후, 106일로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7월1일부로 73일로 축소된다. 한편, 1988년부터 구 공산권 영화의 수입이 가능해지고, 예로영화 제작이 활성화되어, 영화심의 규정도 완화된다. 1984년에 한국영화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는 것으로 영화인재 양성을 제도화하고, 1995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설립하고, 1999년 영상원 전문사를 모집한다. 한국영화산업은 IMF를 거치면서 구세대의 퇴장과 신세대의 등장, 1999년부터 멀티플렉스의 등장, 2013년의 디지털 시네마로의 전환, CJ 등 대기업중심의 영화산업구조로 재편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다.

IV. 맺는말

1971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된 한국영화의 편수는 5064편이고 전체개봉영화편수는 16,855편이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한국영화는 110.1편이 개봉되고 총 46년간 데뷔한 감독 수는 1,416명이다. 연간 30.78명이 데뷔하는 셈이다.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의 26.4%가 데뷔작품이며 이들 영화들은 연간 한국관객의 23.59%를 차지한다. 그런데 46년간 데뷔한 감독수의 61.72%인 874명이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데뷔한 경우이다. 이 기간 동안 연간 67.23명이 데뷔한 셈이다. 반면에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데뷔한 감독 수는 542명으로 연간 16.42명이 데뷔한 셈이다. 1971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된 한국영화 5064편의 55.23%인 2,797편이 1971년부터 2003년까지 나왔는데 감독은 38.27%만 배출하였다. 이 차이가 한국영화 시장이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인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평균 개봉 한국영화는 84.76편이고 2004년 이후로는 연간 174.38편이 개봉된다. 편수로는 2배 증가하였으나 감독수로는 3배 증가 하였다.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의 편수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개봉된 한국영화 중에서 데뷔작품의 비율을 보면, 2004년부터는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의 40.89%가 데뷔 작품인데 반해, 그 이전의 경우는 20.76%이다.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가 100편이라고 가정할 때, 2003년까지는 연간 20.76편이 데뷔작인 반면에 2004년부터는 40.89편이 데뷔작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경제수준,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영화에 대한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1999년 멀티플렉스가 도입되고, CJ 등 대기업의 영화참여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이 문자 그대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신인 감독의 데뷔를 통한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며 경쟁시장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시대를 가로질러서 동일조건에서 분석하려면, 비율을 보아야 한다. 연도별 전체 개봉영화에서 한국영화 차지하는 비율을 본, 한국영화편수점유율을 보면, 1971년부터 1987년까지 평균 66.19%이고 최대 76.57%(1974년), 최저 51.12%(1987)이다. 이 시기는 1967년 제작사

를 12개로 통합한 상태에서 국산영화 상영편수에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수입쿼터제의 시행으로 줄속으로 한국영화를 대량 제작하던 흔적이 1971년까지 지속되다가, 1970년의 3차 영화법 개정으로, 국산상영편수연계에서 국산영화수출실적 연계로 바뀌게 된다. 1971년의 한국영화수출편수는 210편이다. 1973년의 4차 영화법개정은 영화 제작사를 14-20개사이로 유지, 기업화를 강화하고, 수입업과 제작업을 그들에게만 주어서 독과점을 보장해 주었다. 인위적 독과점으로 한국영화편수 점유율은 그 이후의 기간보다 3배나 높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24.72%, 최대 34.85%(2010), 최저 14.95%(1994)이다. 하지만 한국영화관객점유율은 1971년부터 1987년 평균 28.76%,으로 1988년부터 2016년까지의 37.23%보다 작다. 인위적으로 수입영화는 통제되고, 한국영화는 많이 만들어져서 편수로서 점유율은 높았지만, 관객들의 외면으로 관객 점유율은 높지 않았으며, 1971년부터 1985년 독립영화 제작제가 도입되기 전인 1984년까지 데뷔작품비율은 8.73%, 데뷔관객비율은 9.87%에 불과하다. 연간 데뷔 감독 수는 8.43명이다. 한국의 극장관객의 75% 이상이 외국영화에서 나온 관객이고 한국영화는 외국영화 수입쿼터를 받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상당하였으며, 그 결과 데뷔감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현상유지에 그쳤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 데뷔감독비율은 이전의 3배인 26.39%, 연간 데뷔 감독 수는 20명이다.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60년대, 70년대를 거쳐 온 영화인들과 영화사, 배급시스템이 작용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1988년 미국영화직배와 1997년 IMF로 힘들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평균 데뷔작품관객점유율은 27.4%로 이전의 3배이다. 이 시기 한국영화관객점유율은 19.08%로 이전보다 약 10%가 모자라다. 한국영화편수 점유율은 29.55%로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1998년 46편, 1999년 45편의 한국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신인감독들의 흥행성적은 뛰어났다. 1999년 독립영화제작 자유화가 시행되어, 한국영화를 만드는 것을 제약하던 제도들이 사라진, 2000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한국영화편수점유율은 26.95%로 1971년-1987년의 3분의 1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영화관객점유율은 50.55%로 두 배로 증가하였다. 데뷔작품의 비율은 41.09%로 1971년-1987년의 5배정도이고, 데뷔작품의 관객수비율은 31.51%로 이전의 3배이다. 연간 개봉되는 한국영화에서 데뷔작품의 비율은 1996년 31.67%로 30%를 넘어선 후에 2015년까지 연간 41.24%가 데뷔작품으로 채워졌다. 데뷔작품이 동일한 관객비율은 1993년의 2.93%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평균 45.56%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22.53%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들이 데뷔하는 나이는 큰 변화가 없다. 제작편수가 많아지고, 데뷔감독의 비중이 높아지고, 독립영화제작이 자유화 되었고, 여성감독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데뷔나이가 70년대와 비슷한 이유는 70년대와 달리 영화감독을 지망하는 인력이 대부분 대졸자로서 이전의 고졸자보다 2년에서 4년 늦게 영화계로 입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하면서, 영화계의 역량에 맡기고, 대기업 주도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결과는 긍정적이다. 한국영화의 편수로 인한 몰량공세가 아니라, 외국영화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한국영화의 보호막을 제거한 결과, 일시적으로 경쟁에 뒤처지는 부작용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영화의 자생력을 키우고,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통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한국영화의 관객동원력이 높아졌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뷔작품이 그해 한국영화관객의 81.58%를 차지하였던 2004년 이후, 데뷔작품관객비율은 감소추세이고 2011년 이후는 1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이후 데뷔감독의 54.87%, 42명 정도가 다양성영화로 데뷔한 감독이라는 점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뷔작품의 비율도 2006년 51.33%이후 감소추세로 39%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와 2008년부터의 현재의 4대 배급사 독과점체제가 지속되면서, 상업영화로의 데뷔비율은 감소추세로, 데뷔를 향한 길이 정체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영화로의 데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흥행성적은 좋지 않아서, 인지도 등 영향력과 다음의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재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를 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분석 대상 기간 개봉 한국영화 주요지표

연도	개봉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데뷔영화			비고
	한국	외국		감독 수	편수 비율	관객 비율	
71	139	76	34.89	22	15.83	21.57	
72	92	67	24.57	9	9.78	7.84	
73	78	55	22.10	6	7.69	5.84	4차 영화법 개정
74	134	41	27.77	10	7.46	24.50	오일스크
75	93	36	27.02	4	4.30	4.81	수입쿼터 축소
76	95	34	27.91	7	7.37	7.15	수입외환 160만\$
77	71	55	30.87	5	7.04	11.21	
78	69	41	35.10	4	5.80	3.12	
79	78	55	34.46	7	8.97	9.55	
80	83	40	31.64	8	9.64	7.27	12월 컬러 방송
81	95	37	37.60	5	5.26	1.19	스크린쿼터165일
82	101	35	33.23	13	12.87	16.46	심야극장, 프로그아
83	99	35	25.19	12	12.12	8.80	소극장 증가
84	74	29	30.85	6	8.11	8.93	VTR 40만대보급 영화아카데미모집
85	85	36	23.74	15	17.65	8.76	제작과 수입 분리 독립영화제작제
86	91	53	23.53	19	20.88	20.17	6차 개정 영화법
87	91	87	18.41	18	19.78	11.39	7월영화시장개방
88	84	171	20.81	15	17.86	13.75	미국영화직배 시작
89	84	251	18.55	22	26.19	18.49	
90	105	260	19.28	26	24.76	11.50	
91	127	253	15.66	33	25.98	6.19	
92	103	328	12.30	25	24.27	47.47	
93	78	368	12.12	12	15.38	2.93	촬영소일부개관
94	68	387	11.45	14	20.59	35.91	프린트별수배지 케이블TV 개시
95	67	318	16.07	19	28.36	46.04	영상원 개원 영화업 제조업분류
96	60	331	17.63	19	31.67	51.84	스크린쿼터106일
97	64	288	20.92	25	39.06	38.50	촬영소 완공, CJ 영화제작
98	46	252	20.77	21	45.65	68.39	IMF(97.12)
99	45	239	34.89	17	37.78	29.72	멀티플렉스등장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업 신고제 독립영화제작 자유화
00	61	276	31.58	27	44.26	40.38	한국영화방송쿼터제(지상파영화시간 20-40%,그 외 30-50%) CJ 배급점유율 20.5%
01	63	246	45.56	24	38.10	39.30	디지털 DV 장면(눈물)제작
02	102	219	44.35	41	40.20	38.25	쇼박스 배급
03	72	196	48.40	32	44.44	35.28	
04	78	201	54.5	39	50.00	81.58	롯데 배급 국내 최초 HD영화(육방)
05	85	233	57.8	33	38.82	50.90	HD장면 3편
06	113	245	63.6	58	51.33	36.18	스크린쿼터73일,HD장면 8편
07	119	298	49.9	50	42.02	27.75	HD장면14편 순제작비10억 이하 35 편(31.3%)
08	120	297	42.1	54	45.00	35.75	필름상영비율 93.9% 4대배급한국영화점유율 83.3%
09	141	288	48.7	67	47.52	23.61	전국극장 78% 멀티플렉스
10	168	314	46.6	72	42.86	31.15	디지털 스크린 80%이상 보급
11	169	320	51.9	72	42.60	16.08	필름상영비율 19.6%
12	198	490	58.8	65	32.83	17.28	
13	212	766	59.7	81	38.21	26.28	필름제작 마지막(설국열차) 필름상영비율 1.2% 필름현상소 폐업
14	243	928	50.1	99	40.74	11.25	
15	284	980	52	90	31.69	13.63	
16	337	1236	53.7	94	27.89	10.98	4대배급한국영화점유율 75.4%

경쟁을 통해서 한국영화는 성장하고 있으나, 인위적 제도를 통한 경쟁의 제한 만큼, 독과점에 의한 경쟁의 제한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영화산업이라는 거시분석을 행한 이번 연구 이후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감독 데뷔와 은퇴, 평생에 만들 수 있는 영화편수 등, 미시적 분석의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심리적, 성격, 지능, 감성 테스트 등을 통해서 성공한 감독의 특징을 추려내어, 감독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울 수 있다.

1999년 독립영화제작 자유화로, 영화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사라진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디지털 시네마 이행, 4대 배급사의 독과점과 다양성영화의 증가, VOD용 예로영화의 증가 사이의 관계도 혹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offc/searchOfficHitTotList.do?searchMode=year>

[2] <http://www.kmdb.or.kr/index.asp>

[3] 김정호, “한국영화 4대 배급사의 흥행 10분위 기반 배급 행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307-308, 2016(6).

[4] 김정호, “한국영화 4대 배급사의 흥행 10분위 기반 배급 행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308, 2016(6).

[5] 김동호, 조준형, 이우석, 박지연, 안지혜, 이혁상, 배수경,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p.193, 2005.

[6] 김동호, 조준형, 이우석, 박지연, 안지혜, 이혁상, 배수경,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pp.195-196, 2005.

[7] 김동호, 조준형, 이우석, 박지연, 안지혜, 이혁상, 배수경,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p.206, 2005.

[8] 김동호, 조준형, 이우석, 박지연, 안지혜, 이혁상, 배수경,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pp.208-217, 2005.

[9] 김동호, 조준형, 이우석, 박지연, 안지혜, 이혁상, 배수경,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pp.220-224,

2005.

[10] 김동호, 조준형, 이우석, 박지연, 안지혜, 이혁상, 배수경,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pp.240-258, 2005.

저자 소개

김정호(Jung-Ho Kim)

중신회원



- 1992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과(학사)
 - 1994년 3월 : 한국 영화 아카데미 영화 연출 전공 졸업
 - 2001년 6월 :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program in film & video MFA(예술 실기 석사)
 - 2003년 3월 : 동서대학교 디지털 영상 매스컴 학부 전임강사
 - 2004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 디자인 대학 연극영화학과 부교수
- <관심 분야> : 영화 영상 제작, 영화사, 영화편집, 영화 경제, 뮤지컬, 오페라

김재성(Jae Sung Kim)

정회원



- 1983년 8월 : 서울대학교 영어과 (문학사)
 - 2000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of Radio, Television, and Film, Production in Film and Video (MFA)
 - 1987년 1월 ~ 1997년 5월 : 제일기획 제작팀장
 - 2000년 9월 ~ 2001년 8월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학과 조교수
 - 2001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화 영상제작 연출,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디지털 콘텐츠